

3월 8·10일 중 국힘 전대... '당심 100% 룰' 공방 격화

김기현·장제원 '김장 연대' 가시화 안철수 대구서 "기회 달라" 호소 유승민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 8일 또는 3월 10일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3월 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장소는 잠실 체조경기장 또는 일산 킨텍스 등 대관 가능한 곳을 몰색 중"이라고 했다.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위원장으로 상임이문 등 원로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신경식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당권주자들은 '당심(黨心) 올린' 경쟁을 펼쳤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전날 경남혁신포럼에 김 의원과 나란히 등장했던 친윤계 핵심 관계자 의원도 자리하면서 이들 연속 '투샷'이 적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이런 움직임에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본격화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심으로 결정될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 세력간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두 의원은 이날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맞선 본지 얼마 안됐다. 데이트해야 결혼할지 결정하지 않겠다"(장제원), "(김장)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고 정치권에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기현) 등의 언급을 해 '연대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았다.

전날부터 3박 4일간 대구·경북(TK)을 방문 중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구가 필요하다고 부를 때 항상 가장 먼저 달려오겠다. 안철수에 당 대표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며 최 대 뒷밭에 표심을 호소했다.

한때 여론 일각에서 거론된 권영세 통일부장관·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한 '차출설'엔 당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양반들 심사를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무슨 차출이 있냐"라고 반문했다.

전대 룰 개정을 둘러싼 친윤계와 비윤(비윤석열)계간 충돌은 이날도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심 100%' 룰을 두고 입씨름했다.

친윤계인 김 의원은 룰 개정을 '승부조작'이라고 비판한 유 전 의원을 겨냥해 "공직선거법을 고칠 때마다, 그 선거의 결과는 전부 승부조작인가"라며 "선수가 규칙에 불만이 있다 하는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비윤계 유 전 의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월드컵 개최 두 달 전 이렇게 룰을 바꾸는 FIFA(국제축구연맹)가 어디 있다. 말이 안 된다"며 받아쳤다.

그는 "군사작전 하듯 룰을 개정했다",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 등이라고도 했다.

결선투표제를 놓고도 비윤계 비판에 친윤계의 반박이 도들이표처럼 이어졌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룰로는 제가 1위 하면 끝나는 데, 만약 2위 후보가 윤 대통령이 미는 후보라면 나머지 3위 이하의 표를 다 모아서 2위에게 줘서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결선투표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하필 전대 2개월 전에 공개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도입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당이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의 생각이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룰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들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를 옹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기초연금·생계급여 오르고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지정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 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

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의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

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년간 960만원 지원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120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구직 단념 청년 5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준비금도 신설한다.

세법상 청년 연영범위 상한을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 세액 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미연합훈련에 북핵대응 시나리오 적용

독수리연습 사실상 부활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개발해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한다.

연합훈련은 전반기에만 과거 독수리연습(FE) 수준으로 20여 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될 합참 핵·WMD대응 본부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방 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정환 육군·이종호 해군·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등 각 군, 기관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 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확충 ▲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의 심화·확대 ▲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을 '6대 국방운영중점'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與 간담회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의견일치

자가격리 3일로 단축 의견

국민의힘이 21일 개최한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고,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판단했을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일치된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4명의 전문가가 외국은 거의

다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참고하고, 병원 시설과 인력 등 우리가 가진 의료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7일로 규정된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도 "일반인은 확진시 7일을 자가격리하지만 의료진은 3일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도) 3일 정도 (격리)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